

1.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2020학년도 의예 계열 1번의 논술 문제는 언어와 사고, 언어와 인식, 언어와 프레임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차별적 요소가 있는 표현을 대안적 표현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담고 있는 사회적 의의를 서술하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가)에서는 표현 문제를 다룬 시 텍스트를, (나)에서는 생물학 관련 학문 용어를 개정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가)는 동일한 대상을 무엇으로 명명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고 그것이 사람의 가치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발상을 담고 있는 작품이고, (나)는 2017년 일본의 한 유전 관련 학회에서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사례이다.

이러한 자료 제시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 텍스트의 주제의식을 읽어낼 수 있는 분석적 사고 능력이다. 둘째, 시 텍스트의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특정 학술 용어가 지니고 있는 차별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추론적 사고 능력이다. 셋째,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발견하여 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다.

이 논술 문항의 문두는 “(가)와 (나)에서 ‘이름 붙이기’가 공통적으로 갖는 의의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같은 시도의 사회적 함의를 추론하여 서술하시오.”이다. 그리고 (가)는 정일근의 시 <신문지 밥상>이고, (나)는 일간 신문에 실린 신영전의 칼럼 <우월한 생(優生)은 없다> 중 일부이다.

(가)에서는 밥을 먹기 위해 신문지를 깔 때 이를 밥상이라 부르는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여 명명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나)에서는 유전 관련 학회에서 학술 용어를 개정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두 제시문에서 ‘이름 붙이기’가 공통적으로 갖는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가)를 참조하여 (나)에 숨어 있는 그 학회의 의도를 추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우/열이라는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는 명명이 지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으로 선택된 용어가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이 서술되어야 한다. 즉 ‘우/열’이라는 대립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의식이나 편견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해 내어야 하며, 그 대신 ‘현/잠’의 대립은 이러한 차별 의식이나 편견이 배제된 객관적·중립적 이름임을 밝혀야 한다. 이는 이름, 곧 언어가 사고를 규정한다는 일반적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된다.

이러한 식의 이름 붙이기가 가지는 사회적 함의는 성, 인종, 계층, 외모, 학력 등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명시적, 암묵적 차별 의식을 교정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의 구체적인 사례를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과 전개	<p>답안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두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이다.</p> <p>(i) (가)와 (나)에 나타난 ‘이름 붙이기’가 공통적으로 갖는 의의</p> <p>(ii) (나)와 같은 시도의 사회적 함의</p> <p>답안의 구성과 전개는 아래의 내용 요소 별 답안을 평가할 때에 함께 고려될 것으로서, 이 영역에 별도의 배점은 없다.</p>	0
내용 요소	<p>(가)와 (나)에 나타난 ‘이름 붙이기’가 공통적으로 갖는 의의</p> <p>이 내용은 다시 다음과 같은 요소로 나눌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와 (나)에서 이름 붙이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기 - ‘이름 붙이기’의 공통적인 의의(중요성이나 가치)를 밝히기 <p>[예시 답안] (가)에서는 신문지를 밥상 대용으로 활용할 때 이를 ‘신문지’ 대신 ‘밥상’이라고 명명하는 어머니가, (나)에서는 ‘우성/열성’을 ‘현성/잠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어떤 학회의 결정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문지’ 대신 ‘밥상’이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 밥을 먹는다는 인상을 주면서 초라하고 웅색한 끼니 때우기라는 이미지를 가려준다. 그리고 ‘우성/열성’ 대신 ‘현성/잠성’이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우’와 ‘열’이 어떤 형질이나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사례는 이름 붙이기는 가치 판단, 가치 규정, 가치 부여, 의미화, 태도의 표명이라는 의의를 공통적으로 갖는다.</p> <p>[채점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대신 ‘밥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어머니의 말씀 철학’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는가?(5) - ‘우성/열성’ 대신 ‘현성/잠성’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학회의 의도를 추론했는가?(5) - 두 사례의 공통점이 이름 붙이기가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 규정, 가치 부여, 의미화, 태도 표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데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는가?(15) 	25
	<p>(나)와 같은 시도의 사회적 함의</p> <p>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하위 요소로 구별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와 (나)에 공통된 ‘이름 붙이기’의 의의를 바탕으로 삼기 - (나)와 같은 시도가 지니는 사회적 함의를 추론하여 쓰기 <p>[예시 답안]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와 같은 시도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의식이 함축된 언어 표현이나 용어를 고쳐 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의식을 해소하고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위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함의를 갖는다. 한때 ‘살색’이라는 말이 흑인이나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살구색’으로 대체된 것 또한 언어 표현에 내재된 편견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한 사례라 할 것이다.</p> <p>[채점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와 (나)에 공통된 ‘이름 붙이기’의 의의인 ‘가치 판단’이나 ‘가치 규정’ 등을 일관되게 이어받으면서 사회적 함의를 서술하고 있는가?(10) - (나)와 같은 식의 용어 개정이나 표현 다듬기 시도가 지니는 사회적 함의를 편견 또는 차별 의식의 해소,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가?(15) 	25
문장과 표현	<p>정확한 단어 및 표현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 문제의 경우, 이 요소는 위의 ‘내용 요소’의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평가하면서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의 배점은 배정하지 않는다.</p>	0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95-90	 상-중-하 89-85-80	<C> 상-중-하 79-75-70	<F> 10-0
평가 내용	<p>다음의 채점 요소를 모두 충족하거나 하나의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p> <p>① ‘신문지’ 대신 ‘밥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어머니의 말씀 철학’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는가?</p> <p>② ‘우성/열성’ 대신 ‘현성/잠성’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학회의 의도를 파악했는가?</p> <p>③ 두 사례의 공통점이 이름 붙이기가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 규정, 가치 부여, 의미화, 태도 표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데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는가?</p> <p>④ (가)와 (나)에 공통된 ‘이름 붙이기’의 의의인 ‘가치 판단’이나 ‘가치 규정’ 등을 일관되게 이어받으면서 사회적 함의를 서술하고 있는가?</p> <p>⑤ (나)와 같은 식의 용어 개정이나 표현 다듬기 시도가 지니는 사회적 함의를 편견 또는 차별 의식의 해소,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가?</p>	좌의 채점 요소 중 2~3개의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좌의 채점 요소 중 3~4개의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좌의 채점 요소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범

분량	650자 이상 750자 이내	750자 초과	600자 이상 650자 미만	550자 이상 600자 미만	500자 이상 550자 미만	450자 이상 500자 미만	400자 이상 450자 미만	400자 미만
		-4	-2	감점 없음	감점 없음	-2	-4	-6
원고지 사용법· 어문규정	상(0-2개 틀림)			중(3-5개 틀림)			하(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1 ~ -2점			-3 ~ -5점	

(2) 내용 조직

- (가)와 (나)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장황하게 진술하는 경우는 5점 감점
-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례가 맥락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5점 감점

5. 유의 사항

1) 다섯 개의 채점 기준은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전체적인 내용상의 흐름이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워야 함.

① (가)와 (나)의 '이름 붙이기'가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를 대상의 '쓰임'이나 '기능', '역할'의 반영에서 찾는 것은 오류임. 이는 (가)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나)에는 해당되지 않음.

② '우성/열성'을 '현성/잠성'으로 바꾼 까닭을 과학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서 찾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 사례와의 공통점과는 어긋나므로 여기에서는 잘못된 초점에 해당됨. 의미가 불명확하다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든지, 오역에서 비롯되었다든지 하는 식의 진술은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함. 이는 사회적 함의를 제시할 때에도 마찬가지임.

③ (가)와 (나)의 이름 붙이기가 '따뜻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라고 진술하는 것은 (나)의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나)는 가치 평하적인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고친 경우에 해당됨.

④ 첫 번째 내용 요소(가치 부여, 가치 규정, 의미 부여, 태도의 표명 등)를 두 번째 내용 요소(사회적 함의)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없음.

2) 문법과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의 개수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감점에 최소한으로 반영함.

한양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논술고사

자연계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오후(2)
의예-2번

1.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문항 1은 제시문에서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하여 조건부 확률을 잘 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문항 2는 주어진 점 p 가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잘 구하고,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문제에서 묻는 극한값을 적분의 형태로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극한의 성질과 부분적분법을 잘 사용하여 극한값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문항 3은 벡터의 기본 성질과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여 주어진 값을 계산이 가능한 형태로 잘 정리하고, 극한의 성질, 정적분의 정의와 부분적분법을 잘 사용하여 원하는 극한값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두 문제를 통하여 극한, 미분 및 적분, 삼각함수 및 벡터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력 및 문제 해결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종합 평가 기준

문항	배점	세부 평가 기준	세부 배점
1	30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사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했는가?	15
		조건부 확률 $\frac{p}{q}$ 와 $p+q$ 를 구했는가?	15
2	30	a_n, b_n, r_n 을 올바르게 구했는가?	5
		극한값 $\lim_{n \rightarrow \infty} a_n$ 및 $\lim_{n \rightarrow \infty} b_n$ 을 구했는가?	10
		극한값 $\lim_{n \rightarrow \infty} r_n$ 을 구했는가?	15
3	40	d_n 을 $\sum_{k=1}^n c_n^k (\overrightarrow{A_1 A_{k+1}} - \overrightarrow{A_1 A_k})$ 의 형태로 잘 정리하였는가?	5
		d_n 을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잘 표현하였는가?	10
		극한값 $\lim_{n \rightarrow \infty} d_n$ 을 잘 구했는가?	25

3. 출제 근거

문항1은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여 독립인 두 사건으로 이루어진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다음의 교과서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교과서 확률과 통계 (좋은책 신사고 황선욱 외 10인)-확률의 뜻-확률의 덧셈 정리 p.62-68, 조건부 확률 p. 76-79

교과서 확률과 통계 (천재 교과서 류희찬 외 17인)-확률의 뜻-확률의 덧셈 정리 p.84-92, 조건부 확률 p. 98-103

교과서 확률과 통계 (금성 출판사 정상권 외 7인)-확률의 뜻-확률의 덧셈 정리 p.76-88, 조건부 확률 p. 95-98

문항2, 3은 교과서의 내용과 다음과 같이 연계되며,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미적분 (동아출판 우정호 외 24인)-수열-극한값의 계산 p.18-22

교과서 미적분 (동아출판 우정호 외 24인)-정적분-정적분 p.197-198

교과서 미적분II (천재교육 이준열 외 9인)-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삼각함수의 뜻 p.62-66

교과서 미적분II (천재교육 이준열 외 9인)-삼각함수의 미분-삼각함수의 덧셈정리 p.92-96

교과서 미적분II (천재교육 이준열 외 9인)-여러가지 적분법-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p.170-p.186

교과서 기하와 벡터 (천재교과서 류희찬 외 17인)-벡터의 성분과 내적-평면벡터의 성분 p.82-85